

# 신재생에너지·축사 등 인허가 강화 영암군, 도시계획 조례 개정 추진

### 태양광 이격거리 상향·풍력 2km 이내 불가 우량농지·집단화된 토지에 축사 신축 안돼



영암군 삼호읍 일대 농지에 설치된 태양광발전시설.

태양광과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와 축사 등을 둘러싸고 갈등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영암군이 이들 시설의 인허가 요건을 강화하고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

25일 영암군에 따르면 군은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의 관계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영암군 도시계획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 입법예고를 마친 개정 조례안은 태양광 및 풍력 발전시설과 건축물 위 태양광 발전시설, 축사 인허가 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산지 내 태양광 발전시설의 경우 산지관리법 개정에 따라 평균경사도를 기존 20도에서 15도 미만으로 강화했다.

또 발전시설 허가 요건을 제약받는 도로에 '도시계획도로'까지 포함하고, 도로와의 이격거리도 현재 100m 이내에서 500m 이내로 상향했다.

주거밀집지역 기준도 10호에서 5호로 확대했다. 5호 이상일 경우 이격거리를 500m 이내, 5호 미만은 100m 이내로 구분해 발전소의 건설을 제한했다.

풍력발전시설은 소음, 진동, 산사태 우려 등 주민들의 피해와 안전 등을 감안해 관련규정을 신설했다. 5호 이

상 주거밀집지역은 물론 학교와 도서관, 노인요양시설 등 정온시설, 관광지 등의 경계로부터 2km 이내에 건설하는 것을 사실상 봉쇄했다.

최근 증가하고 있는 '건물 위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허가기준도 마련했다. 미관과 안전 등을 고려하고, 공작물의 최상단까지 높이가 3m를 넘지 않도록 하는 등 규정을 명확히 했다. 특히 주민들과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는 축사 시설에 대한 인허가도 강화했다.

경지정리가 완료된 우량농지 또는 집단화된 토지에는 축사가 제한된다. 다만, 기존 축사의 부대시설 증축이나 무허가 축사의 적법화 등 일부는 가능하다.

이같은 영암군의 강화된 관련 조례 개정을 두고 지역사회 내에서 찬반이 엇갈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관련 업계에서는 사실상 발전소 건설과 축사 신축이 어려운 개정 조례안을 반대하고 있다.

반면 군의회와 농민회 등에서는 더욱더 강화된 조례를 요구하면서 오는 27일 개최하는 임시회 상정 여부와 군의회의 심의 등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영암군 관계자는 "조례안은 발전시설과 축사 등의 난개발로 인한 환경파괴를 막고 우량농지 보호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면서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고, 임시회 개최 전 상정 여부를 최종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영암=조대호기자

## 신안군, 갯벌어장 스마트 낙지 조업지원

신안군은 '갯벌어장 스마트 낙지 조업 지원 및 자원관리 서비스' 사업이 정부 2021년 스마트블리지 서비스 발굴 및 실증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7억 5천만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도초면 갯벌어장을 대상으로 전통 어업분야에 지능정보기술을 융합하여 지역민 스스로가 낙지 자원을 관리하고 생산량을 증대할 방안과 지역 현안 문제 해결을 통해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한 조업체계 구현을 목표로 올 연말까지 신안군을 주관으로 민간기관이 참여한 컨소시엄 방식으로

추진하게 된다.

주요내용은 갯벌어장 드론기반 낙지자원량 산정, IoT기술과 지능형 CCTV를 이용한 불법 조업 감시 및 알람 서비스, 원격 센서를 통한 갯벌 환경변화 모니터링 연계 조업지원 및 자원관리 체계 구축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스마트블리지 서비스 발굴사업은 AI 등 ICT 기술을 활용한 농어촌 생산성 향상, 안전강화, 생활편의를 개선하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공모사업이다. 신안=이택주기자

## 함평군, 연말까지 농지원부 일제정비

함평군은 농지의 효율적 이용과 체계적 관리를 위해 올해 연말까지 농지원부를 일제 정비한다고 21일 밝혔다.

정비대상은 지난해 전야물량을 포함한 총 53,804필지로 관내 80세 미만 농업인 소유 농지에 대해 중점 정비한다.

농지원부 작성대상은 1,000㎡(시설 330㎡)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 식물을 경작·재배하는 농업인(법인)이다.

농지의 소유·이용 실태 파악을 통해 농업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이번 정비는 농지원부와 토지대장,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등 다양한 정책 데이터의 비교·분석 등을 통해 진행된다.

함평=김광춘기자

## '확진 급증' 목포시, 사회적거리두기 '1.5단계+α' 강화



'코로나19' 확진이 연일 이어지고 있는 전남 목포시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1.5단계+α'로 강화하고 나섰다.

25일 목포시에 따르면 지난 2월 28일 이후 잠잠하던 지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12일부터 현재까지 14명이 발생했다.

특히 지난 20일부터 5일간 사적모임 등을 통한 n차 감염까지 이어지면서 12명이 집중적으로 확진되는 등 확산세가 가파르다.

목포시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1.5

집합·모임 100명 미만, 유흥시설 등 오후 10시 이후 금지 단계로 유지하되 최근 확진자가 발생했거나 위험도가 높은 시설 등에 대해서는 27일 0시부터 5월 2일 24시까지 6일간 방역수칙을 강화하기로 결정했고,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행정명령은 집합·모임·행사 인원은 100명 미만으로 제한하고,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실내체육시설 등은 오후 10시 이후 집합을 금지했다.

또 식당·카페 오후 10시 이후 포장 배달만 가능하고, 종교시설 좌석수 20% 이내, 경로당·복지시설 임시 폐쇄, 진단검사 후 이동 금지 및 결과 통보시까지 자택 대기·자가격리 수칙 준수 등이다.

시는 강화된 사회적거리두기 시행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진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남도 등과 협의해 2단계 격상을 검토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시는 ▲불필요한 외출과 이동 자제 ▲가집·발열·인후통·근육통 등 초기 증상 발현시 외출·이동 삼가기 ▲의료기관 방문 전 보건소 문의 후 선별진료소 방문·검사 ▲입과 코 완전히 가린 상태에서 마스크 상시 착용 등을 강조했다.

김종식 시장은 이날 호소문을 통해 "현재 목포는 코로나 상황 이후 최고의 위기를 겪고 있다"면서 "현재의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한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목포=박정수기자

## 영광군, 흥농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준공 임박

### 커뮤니티센터·포켓주차장 시설로 지역발전 견인 기대



영광군은 문화·복지시설 확충으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추진중인 흥농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이 준공단계에 임박하였다고 밝혔다.

주민 추진위원회와 영광군이 흥농읍의 발전계획을 함께 수립하고 준공 단계에 이르기까지 사업 전반에 걸쳐 협의하여 추진하는 주민상향식·지역 맞춤형 사업으로 지역주민들의 각별한 관심과 호응을 얻고 있다.

흥농읍의 잠재력과 고유의 테마를 살려 독특한 차별성과 경쟁력을 갖추고 떠나가는 농촌이 아닌 모여들고 정착할 수 있는 지역을 만들기 위하여 간판정비 및 노후건물을 철거하여 아름다운 시가지로 변모하였다. 또한, 날씨에 상관없이 운동 및 행사를 개최할 수 있는 시설이 간절했던 주민들의 숙원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수용인원 300명 규모의 커뮤니티센터가 건립됨에 따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영광=서희권기자

## 무안황토갯벌랜드, 바다공원에서 만나는 소자연 분재 전시

무안군은 4월부터 11월까지 바다공원에서 만나는 소자연이라는 주제로 무안황토갯벌랜드 내 분재전시관 공원에 야외전시를 실시하고 있다.

지역출신인故 문형열 옹이 기증한 분재작품, 각종분재도구와 자료 1,000

점을 전시하기 위해 2018년 개관한 분재테마전시관에는 분재의 역사, 모양 잡는 법, 분재 도구와 함께 세월을 품은 멋진 분재작품이 전시되고 있다.

군은 봄을 맞아 겨울 동안 차가운 바다바람을 피해 온실에 보관 중이던 130

여점의 분재를 야외 전시해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끝없이 펼쳐진 무안 청정 갯벌을 바라보며 주목나무, 백일홍, 소나무, 치자나무가 담아내는 자연의 운치를 느낄 수 있다.

무안=이기영기자

신재생에너지 보급(주택지원)사업  
2021년 주택용태양광 3kW

## 전기를 쓰고 있는 내집이라면 “안할 이유가 없는데”

# 그동안 안한 이유가 있나요? 제대로 알아보셨습니까?

정부지원보조금 70%  
자부담 30%

2020년 정부지원금 350만원  
자부담금 150만원  
(2021년도 지원금액 4월 공고 예정)

어디든지 설치 가능

평생 전기요금 절감

- ① 지붕에 붙여서 설치하는 지붕형
- ② 옥상 위에 설치하는 슬라브형
- ③ 마당 빈공간에 설치하는 마당형
- ④ 주차장 옹도로 설치 주차장형
- ⑤ 현관앞 햇빛가림막 이가림막 차양형

지붕, 옥상은 물론 마당 등 우리집 어디든  
낮시간에 그늘만 안지면, 우리집도 태양광 설치 가능

태양광3kW 설치후 전기요금절감			
전기사용량	전기요금	설치후요금	연간절감액
350 kW	55,080원	→ 1,130원	647,400원
450 kW	88,130원	→ 6,020원	985,320원
500 kW	104,140원	→ 11,320원	1,113,840원
550 kW	120,090원	→ 16,640원	1,241,400원
600 kW	136,040원	→ 31,570원	1,253,640원
650 kW	151,990원	→ 42,250원	1,316,880원
750 kW	183,900원	→ 63,620원	1,443,360원

\* 위 전기요금은 2021년 실제 사용량을 참고한 예시금액

주식회사 썬팀  
SUNTEAM Corp.

상담 | 접수 010-4517-1093

매년 당해 한국에너지공단 선정 참여기업과 계약하여 진행  
\*\*전국 | 접수 | 방문 | 상담 | 설치하고 관리해드립니다\*\*

태양광 3kW 설치 후 전기요금 절감